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공공봉사동기(PSM)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국립 경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정책학전공

정 민 제

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공공봉사동기(PSM)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국립 경찰 대학생을 중심으로 -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 책 학 과

정 민 제

공공봉사동기(PSM)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국립 경찰 대학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준 기

이 논문을 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6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정책학 전공
정 민 제

정민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위 원 장 이 수 영 (인)

부 위 원 장 엄 석 진 (인)

위 원 김 준 기 (인)

요약(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 경찰대학생의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공공봉사동기란 공공조직에 나타나는 특유한 동기요인으로 그동안의 연구는 공·사 부문 비교연구를 통한 공공과 민간부문이 추구하는 동기구조가 다를 것을 확인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 간의 연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직 전 가족 사회화나 봉사활동 등 일반사회화를 통한 공공봉사동기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경찰 대학생이라는 공무원 임용을 전제로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일반사회화 뿐 아니라 조직사회화 요인이 공공봉사동기에 주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첫째로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Perry(2000)의 일반사회화 요인을 중심으로 검증해보았다. 미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Perry의 이론이 한국사회의 맥락에 적용되는지 특히 경찰 대학생이라는 특수한 집단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으며, 둘째로 기존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조직사회화 요인(재학기간-학년)이 공공봉사동기에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는지 분석하여 공공봉사동기는 일반사회화 뿐만 아니라 조직사회화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최근의 연구를 검증하고자 했다. 또한 재학기간에 따른 공공봉사동기 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찰간부로서의 희생정신과 봉사정신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경찰대학 교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했다.

집단 간 분석과 회귀방정식을 사용한 실증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가족 사회화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특히 공공봉사동기 측정변수

중 동정심과 희생정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봉사동기 전체로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종교 활동 수준과 공공봉사 동기 수준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넷째, 조직사회화 변수인 경찰대학생의 재학기간이 길수록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았다. 4학년을 1학년에 비해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2학년과 3학년은 거의 비슷했으나 전학년을 비교해 볼 때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공공봉사동기 수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기타 가계소득이나 재수 경험 같은 개인 특성들은 공공봉사동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논문은 첫째로 가족사회화, 봉사활동 등 일반사회화 변수가 공공봉사동기 수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지지한다. 또한 경찰 대학생이 1학년과 비교할 때 4학년 학생의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았다는 것은 공공봉사동기는 입직 전 일반사회화과정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입직 후 조직 내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도 형성되기도 한다는 일련의 연구들을 지지한다.

주요어 : 공공봉사동기(PSM) 결정요인, 가족사회화,
조직사회화, 경찰대학생
학 번 : 2010-22230

목차

| | |
|----------------------------------|----|
| 제 1장 서론 | 1 |
| 제 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 3 |
| 2. 연구의 방법 | 5 |
| 3. 모형의 적합성 검증절차 | 6 |
| 제 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 8 |
| 제 1절 공공봉사동기(PSM)이론 | 8 |
| 1. 공공봉사동기 개념 | 8 |
| 2. 공공봉사동기의 영향요인 | 10 |
| 3. Perry(2000)의 과정이론 | 12 |
| 4. 조직 사회화 이론 | 13 |
| 5. 경찰대학 일반 현황 | 15 |
| 제 3절 공공봉사동기관련 선행연구 | 16 |
| 1. 공공봉사동기 연구 경향 | 16 |
| 2. 공공봉사동기 개념적 차원에 대한 연구 | 17 |
| 3. 공공봉사동기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18 |
| 4. 공공봉사동기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관계 | 22 |
| 제 3장 개념적 분석틀과 연구가설 | 24 |
| 제 1절 연구문제와 개념적 분석틀 | 24 |
| 1. 연구문제 | 24 |
| 2. 개념적 분석틀 | 24 |

| | |
|------------------------------------------|----|
| 제 2절 연구 가설의 설정 | 25 |
| 1. 일반 사회화 변수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 | 26 |
| 2. 조직 사회화 변수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 | 26 |
| 3. 개인 특성 변수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 | 27 |
| 제 4장 연구 설계 | 29 |
| 제 1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 29 |
| 1. 종속변수 : 공공봉사동기 | 29 |
| 2. 독립변수 : 일반사회화 변수, 조직사회화 변수, 개인특성변수 ... | 29 |
| 3. 측정문항의 구성 | 32 |
| 제 5장 연구결과 | 33 |
| 제 1절 기술통계 분석 | 34 |
| 1. 표본의 구성 및 특성 | 34 |
| 2. 측정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 35 |
| 3. 측정변수의 일반적인 경향 | 38 |
| 제 2절 PSM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가설검증 | 41 |
| 1. 일반 사회화 변수에 대한 가설 검증 | 41 |
| 2. 조직 사회화 변수에 대한 가설 검증 | 42 |
| 3. 개인적 특성 변수에 대한 가설 검증 | 45 |
| 제 6장 결론 | 53 |
|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 53 |
|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 54 |
| 제 3절 연구의 한계 | 57 |
| 참고문헌 | 59 |
| 부록 | 65 |
| Abstract | 71 |

표 목차

| | |
|-----------------------------------|----|
| <표1> 공공직무동기의 세 가지 차원 | 10 |
| <표2> 공공봉사동기의 일반사회화 주요 결정변수 | 19 |
| <표3> 공공봉사동기의 조직 사회화 주요 결정변수 | 21 |
| <표4> 표본의 구성 및 특성 | 34 |
| <표5> 공공봉사동기의 타당도 검증 | 36 |
| <표6> 일반사회화 변수의 타당도 검증 | 37 |
| <표7> 영역의 신뢰성 검증 | 38 |
| <표8> 봉사동기의 일반적 경향 | 39 |
| <표9> 일반사회화의 일반적 경향 | 40 |
| <표10> 일반사회화 변수와 봉사동기의 관계 | 41 |
| <표11> 재학기간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 | 43 |
| <표12> 성별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 | 45 |
| <표13> 가계소득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 | 47 |
| <표14> 재수경험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 | 48 |
| <표15> 봉사동기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9 |
| <표16> 공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0 |
| <표17> 동정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1 |
| <표18> 희생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2 |

그림 목차

| | |
|---------------------|----|
| <그림1> 개념적 분석틀 | 25 |
|---------------------|----|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공공조직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조직과 달리 공공성을 조직 목표로 한다. Locke(1964)에 의하면 조직의 목표는 구성원에게 동기를 제공하고 행동의 지표가 되므로 결국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목표의 차이는 각 구성원들의 동기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공공성을 목표로 하는 공무원들은 민간부문 종사자들과는 다른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차이를 중심으로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렇듯 공공봉사동기의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일은 우수한 인재의 유치가 곧 조직의 생존과 직결되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민간분야보다 불리한 보수체제, 정치.경제 활동의 제한 등 많은 제약을 극복하고 공공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인재들을 공직에 종사하고자 만드는 동기, 즉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Perry(2000)에 의하면 가족사회화, 자원봉사, 종교 활동 등 일반 사회화 요인들이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미국사회를 기반으로 한 Perry(2000)의 연구가 한국적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사회화 요인과 구별되는 조직사회화가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Perry & Wise(1990)는 공공봉

사동기를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형성되어 공공조직에 입직하기 이전부터 형성되는 성향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이후 공공봉사동기가 입직 이전의 일반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될 뿐만 아니라 입직 후의 조직사회화과정에서도 형성된다는 결과들이 속 속 발표되었다(Castaing, 2006; Moynihan & Pandey, 2007 ; Park& Rainey, 2008 등).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일반사회화 요인의 영향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조직사회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볼 때, 조직 사회화 요인에 검증 또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는 그 조사 대상을 경찰 대학생으로 하고 있다.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근거로 초급경찰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4년제 대학으로서 졸업 시 학위수여와 동시에 경위로 임용된다. 졸업과 동시에 경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찰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대학진학을 넘어 이미 공직자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찰대학생들을 상대로 공공봉사 동기에 대해 살펴보는 일은 다양한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2년 경찰대 32기 신입생 경쟁률은 63.5:1이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변환표준점수 평균은 536.27점을 참고할 때, 경찰대학이 높은 경쟁률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있음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경찰대학의 교육의 질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4년 동안의 합숙 교육이 경찰대학생의 올바른 국가관 형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사회화 변수 외에 조직 사회화변수로서의 경찰대학생의 재학기간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 대학생이 4년간 엄격한 기율 속에서 수업·정신교양·단체생활 등을 통해 조직 사회화된다고 볼 때 이것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경찰대학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인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경찰 인재양성’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첫째로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Perry(2008)의 일반사회와 요인을 중심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둘째로 기존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조직사회화 요인(재학기간-학년)이 공공봉사동기에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대학의 교육 목표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가늠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경찰공무원으로의 입문 방법은 일반 공채, 경찰대학, 간부후보생 공채, 외사 특채, 고시 특채 등 다양하다. 이러한 입문 경로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람의 지원 동기 및 직무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를 선발하며 경찰대학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경찰로서의 소양과 지식을 획득하는 경찰대학생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경찰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특정한 이유는 기존연구들이 일선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 임용을 전제로 교육받고 있는 경찰대학생이나 사관생도들에 대한 PSM 연구가 전무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동일한 경찰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집단 간의 특성이외의 변수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경찰공무원들과 달리 4년 동안 경찰대학 동기 및 선.후배들과의 단체생활과

각종 경찰로서의 법적, 행정적, 학문적 지식에서부터 기초 소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준비에 많은 노력을 들이는 바공직입문 의지가 강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입문 경로를 통해 입직한 이들에 비해 보다 뚜렷한 공공봉사동기 성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 대학생들의 경우 공공봉사동기(PSM)는 어느 수준인지 그러한 공공봉사동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계량적으로 검토를 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조직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등 공공봉사동기 측정 문항과 함께 성별, 가정형편, 재수경험 등의 개인적 특성변수, 가족사회화, 종교 활동, 자원봉사 등의 일반 사회화 변수, 조직 사회화 변수(재학기간-학년) 중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일반사회화 요인의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인 공공봉사동기의 개념 및 공공봉사동기를 결정하는 선행요인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 적합한 개념들을 제시한다. 둘째, 독립변수로 설정한 개인 특성변수, 일반 사회화 변수, 조직 사회화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종합한다. 셋째, 기존의 연구모형을 경찰 대학생에게 맞게 재설계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맞게 설계된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연구의 방법

가. 자료의 수집방법

본 연구는 실증주의적 연구로서, 공공봉사동기의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설적 모형으로 설계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찰 대학생 264명(1~4학년 각각 60명 이상)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의 측정문항과 개인 특성변수, 일반적 사회화변수, 조직적 사회화변수 등의 항목을 포함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조사는 10분 이내에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된 4쪽 분량의 설문지를 통해 조사 실시되었으며 설문 실시기간은 2012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경찰대학 총학생회의 협조를 얻어 설문지를 직접 전달하였고 264부 배포하여 237부 회수하였다.

나.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근거로 공공봉사동기와 가족사회화, 종교 활동행위, 자원봉사 행동들의 개념 측정문항의 타당도(Validity)를 검증하고, Cronbach's α 값을 이용해 신뢰도(Reliability)를 검증한다. 둘째, 경찰 대학생 내 재학 연수(학년), 성별, 가정형편, 재수경험 등에 따라 공공봉사동기에 차이가 나타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 분석을 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공공봉사동기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변수를 찾아내기 위해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개인적 변수, 일반적 사회화변수, 조직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한다. 이 때 사용한 통계기법은 최

소자승법에 의한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한다.

3. 모형의 적합성 검증절차

가. 측정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집단 간의 공공봉사동기의 차이와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신뢰도 검증으로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1) 타당도 검증

타당도 확보를 위해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변수를 제거했다. 문항 정제 시 하나의 측정변수가 주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의 요인 적재치와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 다중공산성(multicollinearity)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변수를 제거하였다. 변수 제거 후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수의 단일 차원성을 확보하였다.

2)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여러 측정변수들의 신뢰도를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산출하였다. 대체로 이 값이 0.6 이상인 경우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신뢰도의 기준으로 삼았다.

나. 공공봉사동기의 결정요인 검증 절차

본 연구의 주제인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소를 규명하기 위해서 공공봉사동기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우선 회귀모형이 충족해야하는 가설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모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이 공공봉사동기와 그 하위구성요소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모형 검증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공공봉사동기, 일반사회화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공공봉사동기, 일반사회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다. 셋째, 공공봉사동기, 일반사회화의 관계는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일반사회화가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공공봉사동기의 이론적 논의

1. 공공봉사동기의 개념

공공봉사동기란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의미있는 공공봉사를 수행하려는 동기로서(Brewer & Selden, 1998), 공공기관이나 조직에서 우선적으로 혹은 고유하게 나타나는 동기에 부응하려는 개인의 성향(Perry & Wise, 1990) 또는 지역공동체, 국민과 국가 및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일반적인 이타적 동기(Rainey & Steinbauer, 1999)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이렇듯 공공봉사동기란 민간과 달리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공공봉사를 중요한 직무동기로 여기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금전적인 보상을 중요시하는 민간부문의 종사자들과 그 가치체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Rainey, 1982; 박천오, 1989; Crewson, 1995; 이종수, 1997).

오늘날 공공부문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 즉 공무원이 되고자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정부에서 일하길 원하는가? 왜 대중을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하는가? 공공관료나 관리자는 대중을 위하여 봉사하는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공공관료, 과학자 혹은 엔지니어들은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한다든지 혹은 직업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데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정우일, 2005)

공공봉사동기는 처음으로 동기개념을 제안한 Perry&Wise(1990)가 “공공기관이나 조직에서 우선적으로 혹은 고유하게 나타나는 동기(motives)에 부응하려는 개인의 성향”이라고 정의했다. 그 밖에 “개인들로 하여금 의미 있는 공공봉사(예컨대 대중, 지역공동체, 사회에 대한 봉사)를 수행토록 유인하는 동기이며, 공동부문에서 우세한 것”(Brewer&Selden, 1998), “지역공동체, 국민과 국가 및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일반적인 이타적 동기”(Rainey & Steinbauer, 1999), “사적 이익이나 조직의 이익을 넘어서는 신념, 가치, 태도”(Vandenabeele, 2007) 등으로 학자들은 정의하고 있다. 그 중 Rainey & Steinbauer(1999)의 정의는 공공봉사동기를 공익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무원들의 일반적 동기, 즉 공무원들의 동기로 국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한에스터, 2010).

Perry와 Wise(1990)는 공공서비스 동기는 크게 세 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지적한다. 첫째, 수단적 동기(instrumental motives): 정책형성의 참여, 개인의 정체성 때문에 공공프로그램에 몰두, 특정한 혹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후원이다. 둘째, 규범에 근거한 동기(norm-based motives): 공익에 봉사하기 위한 욕구, 의무와 정부에 대한 충성이며 셋째, 애정적 동기(affective motives): 사회의 중요성과 박애에 대한 확신에 기초로 한 프로그램에 몰두(국내 모든 사람을 위한 봉사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들을 종합하여 공공봉사동기를 ‘헌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자기희생적인 방법을 통해 의미 있는 공공봉사를 수행하려는 공공부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동기’로 정의하였다.

2. 공공봉사동기의 영향요인

Perry & Wise(1990)는 공공봉사동기 이론을 공공기관이나 조직에서 우선적 혹은 고유하게 나타나는 동기에 부응하려는 개인의 성향이라 정의하고 공공봉사동기의 3가지 기본명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의 공공봉사 동기가 클수록 개인이 공공조직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클 것이다. 둘째, 공공조직에서는 공공봉사동기와 성과가 정(正)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높은 공공봉사동기수준을 갖는 사람을 유인하는 공공조직은 개인성과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실용적인 인센티브에 보다 적게 의존할 것이라는 것이다(손명구, 2007). 또한 Perry & Wise(1990)은 공공봉사동기를 합리적(rational) 동기, 규범적(norm-based) 동기, 정서적(affective) 동기라는 세 가지 차원의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네 개의 척도를 부여하고 있다.

<표1> 공공봉사동기의 세 가지 차원(Perry & Wise, 1990)

|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 |
|-----------------------------------|-----------------------------------------------------------------|
| 합리적 동기 (공공정책결정에의 호감도) | -정책형성과정에 참여 -공공정책과 자신을 동일시 -특정 이해관계에 대한 지지 |
| 규범적 동기 (공익에의 몰입) | -공익봉사의 욕구 -의무와 정부 전체에 대한 충성 -사회적 형평 추구 |
| 감성적 동기 (동정과 희생) | -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한 정책에 대한 몰입 -개인적 감정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애정과 국가에 대한 애정 |

첫째, 합리적(rational) 동기는 개인의 효용극대화에 기반을 둔다. 이때 효용극대화는 사적이익이라기 보다는 공무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국민을 위한 봉사가 개인적 가치로 전환된 효용을 의미한다. 즉, 정책과정에 참가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라고 할 수 있다(전영한, 2005). 다시 말해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함으로써 얻어지는 일련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작동기제를 통해 합리적으로 노력한다는 의미이다(Perry & Wise, 1990). 이는 정책형성과정에의 참여, 공공정책에 대한 동일시, 특정 이해관계에 대한 지지의 주된 특징을 가진다.

둘째, 규범적(norm-based) 동기는 공공의 이익이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공익봉사의 욕구, 사회적 형평을 추구하려는 욕구이며 이러한 동기에는 애국주의, 정부에 대한 의무와 충성심 등이 있다. 공익에 대한 ‘이타적인’ 봉사욕구를 공직 참여의 규범적 동기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이타적이라 함은 사익과 충돌되는 공익적 가치일 지라도 후자를 추구한다는 규범적 가치 추구행위를 말한다(강남구, 2011). 또한 자신을 정부에 동일시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추구 행위 또한 규범적 동기의 한 예라 할 수 있으며, 규범적 동기가 강한 사람은 정부와 의무에 충성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등의 사회적 형평성 달성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는 특성을 보이는데, Perry(1996)는 이를 공익에 대한 몰입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이타적인 봉사욕구는 정서적 동기와 유사해 보이나, 규범적 동기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감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셋째, 정서적(affective) 동기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반응하는 일련의 감정적 형태를 의미하며, 인간의 감정에 기반을 두고 타인을 돕겠다는 욕망과 의지로서 특징지어진다고 한다. 이는 인류애적인 감정적 차원으로 사회적 가치에 부응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동정하며 이러한 감정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때

의 동정이란 공공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어지는 유·무형적 보상을 위해 갖게 되는 공무원의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 내지 의지는 인류애적인 감정적 차원으로 이를 수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Frederickson & Hart, 1985).

3. Perry(2000)의 과정이론

Perry는 1990년 공공봉사동기의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하면서 공공봉사동기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후 이를 보완하여 과정이론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공공봉사동기이론은 합리적 선택모델과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개인의 선호나 가치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지배적인 시각을 비판한다. 개인의 동기(motivation)는 개인들이 효용 극대화원칙에 따라 단순히 행동 대안을 비교하고,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행동하도록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기존의 동기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자기희생, 이타주의, 동정심, 의무감, 공익몰입 등 공공부문에서 독특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동기를 구성하는 ‘개인의 선호는 내생적이며 학습되어지는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Perry, 2000). Perry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공봉사동기이론의 기반인 대안적 동기이론을 과정이론으로 재구성하면서 공공봉사동기의 네 가지 이론적 전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합리적 규범적 그리고 정서적 과정이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시킨다. 둘째, 사람들은 그들의 자기개념(self-concepts)에 의해서 동기부여 된다. 셋째, 선호나 가치는 동기이론에 대하여 내생적(endogenous)이어야 하고, 넷째, 선호는 사회적 과정에서 학습된다는 것이다(손명구, 2007).

Perry에 따르면 개인의 선호란 주어진 것이나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선호와 동기를 형성하는 환경적 변수, 즉 사회역사적인 맥락, 동기적 맥락, 개인적 특성 등에 의한 상호작용적인 인과적 관계에서 개발된다고 보았다. 결국 공공봉사동기의 과정이론은 기존의 동기이론과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기존 동기 이론들로 설명하기 힘들었던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의 동기요인의 파악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공공봉사동기이론에서는 기존의 동기이론에 바탕을 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동기 요인 차이 연구가 아니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실재하는 동기요인의 탐색과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공공봉사동기이론은 민간부문과 구별되는 공공부문의 특정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다른 동기이론보다 공무원이나 비영리 부문 종사자들의 다른 행동양상이나 선호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한 에스더, 2010).

4. 조직 사회화 이론

조직사회화(organizational socialization) 또는 직업사회화(occupational socialization)란 새로운 조직 또는 직업이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들의 학습을 의미한다(Chal et al., 1994). 사회화 요인은 이들 사회화를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의미한다. 즉 조직사회화를 통해 조직인은 조직구성원으로 필요한 태도, 행태, 지식 등을 획득하게 된다.(Van Manen & Schein, 1979) 유년기의 일반사회화에 비해 조직사회화 또는 직업사회화가 독립적이며 차별적으로 구별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Mortimer & Simmons(1978)는 양자의 기능론적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사회변화, 인생주기 따른 변화로 인해 유년기의 일반사회화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성년기 사회화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첫째, 유년기 사회화가 생리적 욕구의 규제라면 조직사회화는 구체적인 가치, 규범, 행태와 관련된 학습이다. 둘째, 전자는 사회화시키는 사람과 사회화되는 사람의 관계가 애착적·비공식적인데 반해, 조직사회화는 비애착적이며 공식적인 특성을 갖는다. 셋째, 유년기 사회화는 학습자가 유연하나 조직사회화는 경직적인 특성을 보인다.

조직사회화의 개념, 원인, 내용, 과정에 대해서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김서용 등(2010)은 기존의 연구를 역할이론, 맥락 또는 구조이론, 정체성 이론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정리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역할이론(role theory)의 관점에서 Thorton & Nardi(1975)는 역할획득에 대해 정교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화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라 역할획득의 원천, 내용, 기대의 형태와 정도, 개인의 반응 등을 연구변수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경험이론(experience theory)에서는 사회 결정론적인 변수보다 실제 일과 관련된 변수들이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높이 평가한다. Dodd-Mc Cue & Wright(1996)는 사회화 변수로서 직장 내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이 사회적으로 주어진 성(sex)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steinberg 등(1981)은 인생 주기 상 초반부의 근로 경험이 직업에 대한 태도, 개인적인 성격특성, 일과 관련된 지식 획득 등의 직업사회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실증하고 경험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사회화 과정으로서 경험이 가져오는 효과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조직 구조 또는 맥락이론에서는 개인의 역할 또는 경험에 초점을 두는 기존의 미시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조직의 유형, 구조, 기술, 업무, 고객 등과 같은 거시적 요소들이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마

지막으로 정체성 이론에서는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화 대상자가 사회화 촉진자나 기제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애착에 초점을 두고 조직 내에서 개인은 상황 대응 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고 한다(Morimer & Simmons, 1978).

5. 경찰대학 일반 현황

경찰대학은 1972년 당시 국립경찰전문학교를 (구)경찰대학으로 개칭한 것에서 시작하였으며, 그 뒤 실질적 4년제 경찰대학의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1979년 6월 20일 치안본부 산하 ‘경찰대학 개설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대학 신설을 추진한 끝에 1979년 11월 17일 ‘경찰대학설치법’이 국회를 통과, 동년 12월 28일 공포, 1981년 제1기생이 입학하였다. 「경찰대학설치법」을 보면, 경찰대학은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 연마 및 심신 단련을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국립대학이다. 그리고 경찰대학 설립의 근거법률인 「경찰대학설치법」은 입학자격(제3조), 교수 임명(제6조 2항), 학사학위(제7조) 등 부분에서 「고등교육법」을 준용하고 있는 바,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등교육법 제28조). 이를 종합하면 경찰대학은 대학으로서의 일반적 목적에 더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치안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특수 대학으로서의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제 2절 공공봉사동기 관련 선행연구

1. 공공봉사동기 연구 경향

공공봉사 동기는 초기 개념적 연구(Perry & Wise, 1990; Perry, 2000)에서 출발하여 현재 국내에서도 공직동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봉사동기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공공봉사동기의 개념과 개념적 차원에 대한 연구, 두 번째, 공공봉사동기의 효과에 관한 연구, 셋째, 공공봉사동기의 결정요인 또는 그 원인에 대한 연구다.(김서용, 2009) 또한 공직동기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크게 공직동기 결정요인을 제시하는 연구(Perry, 2000),와 형성요인으로서 일반사회화에 초점을 둔 연구(Perry, 1997; Perry et al., 2008), 그리고 결정요인으로서 조직적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Denhardt, 1968; Castaing, 2006; Moynihan&Pandey, 2007; Taylor, 2008; Pandey& Rainey, 2008; 김서용, 2009)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공공봉사동기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봉사동기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개념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개념적 연구는 공공봉사동기 과정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로 앞에서 살펴본 Perry(200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Perry는 공공봉사동기가 사회역사적 맥락, 동기맥락, 인간적 특성, 행태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됨을 제시하였다(김서용, 2009). 공공 봉사동기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공공봉사동기의 측정 척도에 대한 연구와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즉 PSM의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2. 공공봉사동기의 개념적 차원에 대한 연구

Perry & Wise(1990)는 공공봉사동기를 공공조직에 특별하게 존재하는 개인적 성향이라고 보고, 합리적(rational), 규범적(normative), 감성적(affective)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Perry는 이후 연구(1996)에서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공공봉사동기가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 공익몰입, 동정심, 희생정신의 네 가지 차원으로 되어있다고 보고 이를 측정문항을 통해 검증하였다. Perry가 제시한 척도의 장점은, 다양한 차원에서 설문을 시도함으로써, 차원이나 문항 수를 줄여 시도한 기타 연구(Rainey,1982; Alonso & Lewis, 2001; 김상목, 2005)에 비해 보다 세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계점으로는 규범적 차원과 감성적 차원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요인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Morrow, 1983; Ko.Price &Muller, 1997).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차원의 구분 없이 무리하게 단일한 차원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 오히려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거나 합리적 차원의 존재 가능성을 무시할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Wright & Pandey, 2005) 이후 Vandenabeele(2008), Coursey &Pendey(2008), 조태준·윤수재(2008) 등은 Perry(1996)가 제시한 측정문항을 재검증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는 측정문항을 개발하는데 주력했다.(기서용, 2009)

한편 Brewer(2000)는 공공봉사동기의 네 가지 차원으로 Q방법론 분석을 통해 사마리아인,(Samaritans), 공동체주의자, 애국주의자, 인본주의자를 제시하였으며, Vandenabeele(2006, 2007, 2008)는 Perry의 4개 차원에 평등, 관료제적 가치, 고객지향성의 3개 영역을 추가하였다. Vandenabeele의 연구는 공공봉사동기가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되

고 내재화 되는 것이라면 사회화가 진행되는 환경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남명우, 2011)

3. 공공봉사동기의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가. 일반사회화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공공봉사동기의 결정요인으로써 일반사회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공무원들의 사회적 배경 변수(Perry,1997)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연구의 대표적인 Perry(1997)의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가족사회화, 종교 활동, 부모와의 관계, 직업의 동일시, 정치적 신념, 학력, 연령, 소득 등을 연구하였다. 이후 Perry(2008)의 연구는 가족 내 사회화, 종교 활동,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봉사 등이 공직동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있다. 자원봉사와 관련 김혜경(1998)은 어려서 부모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통한 가족 사회화 과정이 자원봉사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자원봉사를 사회화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자원봉사를 하게 된 동기나 지속, 참여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들의 주변에 존재하는 부모나 이웃의 누군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성록,2001). Amato & Booth(1997)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사려 깊고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이러한 행동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일 경우 자녀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주게 된다고 한다.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김기원(1997), 양점도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종교를 가진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원봉사 활동참가율이 높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이근주(2005)는 나이와 입직 시 직급을 공공봉사동기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하였으며, 김서용(2009)의 연구에서는 계급

과 연령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난 반면 학력과 소득, 성별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이후 2010년의 연구에서는 연령, 부모의 역할, 봉사활동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종교 활동의 의미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2> 공공봉사동기의 일반사회화 주요 결정변수

| 연구자 | 선행요인 |
|----------------------|--------------------------------------------|
| Perry(2000) | 교육수준(+), 종교경험(+), 가족 사회화(+), 자원봉사(+) |
| Alonso & Lewis(2000) | 근무부서, 재직기간, 성별, 학력, 연령(+) |
| Bright(2005) | 교육수준(+), 관리레벨(+), 성별(여성 ↑) |
| 이근주(2005) | 연령(+), 입직 시 직급(+), 성별, 직급, 직렬 |
| Camilleri (2007) | 연령(합리적차원+, 그 외 차원-), 성별, 교육(-), 소득(+) |
| 박지환(2009) | 가족사회화(+), 종교적행위, 자원봉사(+), 모델링(+), 계급, 교육수준 |
| 김서용(2009) | 연령(+), 계급(-), 학력, 성별, 소득, |
| 김서용 외 (2010) | 연령(+), 부모역할(+), 봉사경험(+), 종교활동 |

출처 : 한에스더(2010)에서 재구성.

나. 조직사회화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일반사회화 요인을 주로 조직 입직 전부터 작용한 사회화 요인이라고 한다면, 조직사회화 요인은 조직 입직 후 조직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화 요인들을 말한다. 공공봉사동기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일반사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므로 공직동기의 결정요인으로서 조직 사회화에 대해서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 의해 공공봉사동기가 일반사회화 변수뿐만 아니라 조직사회화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예로 조직사회화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학자들 중 Taylor(2008)는 조직차원에서 제공되는 내재적 외재적 유인이, Castaing(2006)은 심리적 계약관계가, Park & Rainey(2008)는 리더쉽이 각각 공공봉사동기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Moynihan & Pandey(2007)은 일반 사회화 요인뿐만 아니라 공직동기에서 문화, 번문욕례 등 문화, 계층 수, 번문욕례, 개혁지향 등의 조직적 요소가 공직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 있다. 한편 김서용 (2010)은 일반사회화 요인과 조직사회화 요인을 대비시키는 연구를 통해 일반사회화 요인뿐 아니라 조직사회화 요인이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 재직기간

본 연구에서 조직사회화 변수로 다루고 있는 재학기간 즉 재직기간에 대한 연구관련 Moynihan & Pandey(2007)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Romzek & Hendricks(1982)에 의하면 공직자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조직의 목표달성에 좌절하여 봉사의지가 좌절된다고 본 반면 박지환(2009)은 해군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 재직기간이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서용(2009)은 재직기간은 공공봉사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2) 계급

이근주(2005)는 현 직급과 입직 시 직급에 따른 공공봉사동기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현 직급이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입직 시 직급이 공공봉사동기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송운석(1998)의 연구에 따르면 계급이 높을수록 정서적 애착, 헌신, 이타주의 행태가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환(2009)에 의하면 계급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김서용(2009)이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계급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표3> 공공봉사동기의 조직사회화 주요 결정변수

| 연구자 | 선행요인 |
|--------------------------------|--------------------------------------------------------------|
| Perry (1997) | 조직 환경의 영향을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 |
| Camilleri (2007) | 역할갈등(-), 모호성(-), 상사와의 관계(+), 기업가정신(+), 자율성(+), 사람을 통한 생산성(+) |
| Moynihan & Pandey (2007) | 조직문화, 번문욕례(-), 위계레벨, 친 조직원적 개혁(-), 재직기간(-), 조직 |
| 김서용 (2009) | 계급(-), 재직기간, 조직몰입(+), 집권화,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
| 박지환 (2009) | 계급, 재직기간(+) |
| 한에스더 (2010) | 업무모호성(-), 업무결과에 대한 경험된 책임감(+), 업무특성, 직무만족도(+) |

출처 : 한에스더(2010)에서 재구성.

다. 기타 개인적 특성 요인에 대한 연구

Bright(2005)는 오레곤 주 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특성변수들과 공공봉사동기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고 직급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가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공공봉사동기가 높

았다. Moynihan & Pandey(2007)는 교육, 조직 멤버십, 권위 계층, 성별, 학력, 소득, 연령 등을 변수로 선정하여 그 중 교육, 멤버십, 권위 계층 등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Stejin(2008)은 관리직위, 성별, 학력, 연령 등을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Alonso & Lewis(2000)는 근무부서, 성별, 학력, 연령 등을 변수로 분석을 시도하였다.(한에스더, 2010 재인용) 이근주(2005)의 연구결과 나이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졌으나 성별 및 현 직급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김서용(2009)은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시 나이는 영향력 있는 변수였으나 학력과 소득, 성별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4. 공공봉사동기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관계

공공봉사동기에 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우선 일반 사회화 요인에 대해서는 입직 이전 공무원의 사회적 배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특히 Perry는 주요 영향변수로 가족사회화, 종교적 행위, 자원봉사를 강조하였다. 이 중 가족사회화, 자원봉사경험은 다수 연구에 의해 그 영향력이 입증된바 있으나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영향력이 없다는 연구(박지환, 김서용 등)도 있다.

조직사회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계급, 재직 기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재직 기간과 관련해서는 Moynihan & Pandey(2007)는 부(-)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으나 박지환(2009)의 해군간부들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는 재직기간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서용(2009)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재직기간이 공공봉사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는 조직사회화

요인 중 경찰 대학생의 재학기간을 변수로 선정하여 재학기간의 차이가 경찰대학생의 공공봉사동기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검증하여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재직기간 요인의 유의미성을 경찰 대학생이라는 집단 속에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개인특성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특히 나이나 성별, 학력과 소득 등에 따른 공공봉사 동기 결정여부를 다루고 있는데 경찰대학생의 나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경쟁이 치열한 입학시험을 치르고 오는 학생들의 학력은 어느 정도 평준화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고등학교의 학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개인 특성요소로는 성별, 가정형편을 변수로 선정하고 그 외 경험변수로서 재수 경험을 추가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봉사동기 수준 측정 척도와 관련하여 Perry(1996)가 제시한 네 가지 차원에 의거한 문항의 척도를 이용하되 그 중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는 개인의 정책 선호도나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후의 연구가 있었고, 경찰대학생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PSM 측정척도에서 제외하고 공익몰입, 동정심, 희생정신 3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제 3장 개념적 분석틀과 연구가설

제 1절 연구문제와 개념적 분석틀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경찰 대학생의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수를 분석하는 것이다. 경찰 대학생의 공공봉사동기 수준을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반사회화 요인, 조직사회화 요인, 개인 특성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이 공공봉사동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여 의미 있는 중요변수를 찾고자 한다. 특히, 경찰대학에서의 재학기간 차이가 공공봉사동기 수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여 경찰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자 한다.

2. 개념적 분석틀

본 연구는 경찰 대학생의 공공봉사동기의 결정요인을 밝히고 조직적 사회화 요인인 재학기간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한 변수설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변수로서 성별, 가정형편, 재수경험을 설정하였다.

둘째, 일반사회화 변수로서 가족사회화, 종교 활동, 자원봉사를 선정하였다.

셋째, 조직 사회화 변수로서 경찰대학에서의 재학 기간(학년)을 산정하였다.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1> 개념적 분석틀

제 2절 연구가설의 설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대학생의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함이다. Perry는 공공부문 종사자인 공무원이 민간부문 종사자들보다 높은 공공봉사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찰 대학생도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민간부문 종사자들보다 높은 공공봉사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Perry (1990, 1996)의 전제와 척도를 적용했다. 변수의 특성에 따라 개인 특성 변수(성별, 가정형편, 재수경험), 사회화 변수(가족사회화 종교적 행위, 자원봉사), 조직화 변수(재직 기간)로 나누고 아래와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일반 사회화 변수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

공공봉사동기가 공직에 입문하기 전부터 형성되는 성향이라면 가족적 사회적 요인 등 일반 사회화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중 가족사회화란 부모의 자원봉사성향, 역할 모델링 등에 영향을 받아 가족이란 사회 안에서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종교행위는 기본적으로 자기희생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무관하지 않으며 모든 자원봉사 활동이 기본적으로 이타심에 기초한 봉사동기의 발로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사회화 변수에 대한 Perry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가족사회화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 종교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 자원봉사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을 것이다.

2. 조직 사회화 변수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

Merton(1940)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조직의 일상 업무에 적응하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조직의 근본목표를 망각하게 되며,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한 자각이 생기게 되어 공공봉사동기가 약화된다고 보았으며, Romzek & Hendricks(1982)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목표 달성에 회의적이 되어 공공봉사동기가 약화되었다. 그러나 경찰대학은 유능한 경찰 초급간부를 양성한다는 특수한 교육목표를 가진 조직으로 경찰 대학생은 4년 동안의 교육기간 동안 건전한 국가관, 희생과 봉사 정신 등을 함양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 안에서 일상 업무에 적응하여 회의적이 되어 가기보다 오히려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론뿐 아니라 경찰 실무를 더욱 배워가고 일선에 가까워지는 기대감으로 공공봉사동기가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박지환(2009)의 연구에서 해군 간부의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경찰 대학생의 재학기간이 길수록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을 것이다.

3. 개인 특성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성별의 경우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Bright(2000) & Perry(2008)의 연구에서는 감성적인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공공봉사동기를 나타냈으나, 남명우(2011)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성별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공공봉사동기 수준의 평균이 높았다. 원숙연과 전소연(2007, 한국행정학회)의 연구 및 이해운(2007)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봉사동기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 성별에 따른 공공봉사동기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소득으로 표현되는 가정형편은 Perry(1997,2008) 등 연구에서 공공봉사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변수들의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6] : 가정 형편이 좋을수록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을 것이다.

한 에스더(2010)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은 개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공공봉사동기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입학에서 재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회적 경험과 숙고의 기회가 더욱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입시 첫해에 경찰대학 시험에 낙방하여 재수한 경우 또는 첫해 일반 대학에 지원하였으나 재수로 경찰대학에 입학하였다 하더라도 1년간의 숙려기간 동안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심사숙고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역시 공공봉사에 대한 수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수준의 차이의 방향은 알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7] : 재수 경험에 따른 공공봉사동기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4장 연구 설계

제 1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 공공봉사동기

Perry(1996,1997)는 공공봉사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 공익 몰입, 희생정신, 동정심의 4가지 차원을 구성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24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erry(1996)가 개발한 문항을 바탕으로 이근주(2005)가 번역하여 실제로 사용했던 문항을 일부 재구성하여 측정문항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Perry가 제시한 4가지 차원 중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는 Perry의 2008년 연구를 비롯한 몇몇 연구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받아 공공봉사동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를 제외한 공익 몰입, 희생정신, 동정심 3가지 척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공공봉사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작성되었으며,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를 응답자가 직접 선택하여 기입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다. 또한

연구의 모델에는 기존연구에 증명된 성별, 가정형편 개인특성 변수와 가족사회화, 종교적 행위, 자원봉사의 일반적 사회화변수를 포함하여 재검증을 시도하였다. 추가적으로 재수 경험과 같은 경험 개인변수, 재학 기간의 차이 같은 조직적 사회화변수를 분석모델에 포함하여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일반사회화 변수

1) 가족사회화

가족 사회화는 개인이 가족 내에서 성장해 오는 동안 경험 가능한 것들로 측정 변수는 Perry et al.(2008)에서 사용한 문항을 원용하였다. 가족사회화는 부모의 자원봉사참여정도, 가족 간의 조력, 부모의 곤경에 처한 이들에 대한 태도, 도덕적 가치들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 등이 포함된다. 가족 사회화의 측정변수는 모두 6개이며 모두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한 자가 응답방식으로 측정하였다.

2) 종교 활동

종교 활동은 종교의식 참여, 기도 또는 종교서적 읽기,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종교의식 실시, 종교시설에서의 종교의식 이외의 신앙 활동, 종교나 신앙봉사조직과 관련된 활동 참여도로 측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측정변수는 5개로 모두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한 자가 응답방식으로 측정하였다.

3) 자원 봉사

경찰 대학생의 자원봉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Perry 등(2008), 박지환(2009), 남명우(2011)이 사용하였던 문항을 원용하되 경찰 대학생도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한다는 전제하에 정당 또

는 정치단체에 속하여 실시한 자원봉사를 묻는 항목은 제외하였다. 한편 자원봉사 수준은 공식적 자원봉사와 비공식적 자원봉사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부와 같은 공식적인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이며 자발적인 봉사도 광의의 자원봉사 개념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Perry, 2008). 공식적 자원봉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 단체 또는 기타 자원봉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한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비공식적 자원봉사는 각종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이동수단 지원, 일상생활의 거둬, 무임노동 등으로 직접 나타나므로(Weitzman et al., 2002; Perry, 2008, 박지환, 2009, 재인용) 이에 대해 지난 해 할애한 시간을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본인이 할애한 시간과 가장 부합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하였다.

나. 조직사회화 변수

본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조직 사회화 변수로 경찰대학생의 재학기간을 설정하였다.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경찰대학은 특수대학으로 유능한 경찰 초급간부 양성을 위해 특별한 커리큘럼과 교육방식을 갖고 있다. 4년간의 수학기간 동안 전원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총학생회, 명예위원회, 동기생회 등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자치 기구를 운영하며 사관학교의 예에서 보듯이 선.후배 관계가 엄격하다. 이런 경찰 대학생에게 재학기간 즉 학년은 계급과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후기 모집이 없으며 휴학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학년별로 재학기간이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측정 방법은 질문지에 학년을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 개인특성 변수

본 연구에서 공공봉사동기 형성에 영향을 주어 공공봉사동기 수준의 변화를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 개인 특성변수로 성별, 가정형편, 재수 유무를 선정하였다. 성별과 재수여부는 질문지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가정형편은 우리나라 4인 가족 평균 소득을 참고하여 7개 급간으로 분류하여 본인에 가장 부합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3. 측정문항의 구성

Perry(1996)가 개발한 문항을 중심으로 이근주(2005)가 번역하여 사용했던 문항을 일부 재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공공봉사동기(PSM)의 척도는 공익몰입, 희생정신, 동정심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코자 하였고,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독립변수는 개인특성변수, 일반사회화 변수, 조직사회화 변수로 나누고 개인 특성변수로서 성별, 재수경험, 가정형편을 선정하였으며, 일반사회화 변수는 가족사회화, 종교활동, 봉사활동을 선정, 마지막으로 조직사회화는 경찰대학생의 재학기간을 학년별로 구분하였다.

제 5장 연구결과

본 연구는 설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 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 12.0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 s α 를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공공봉사동기, 일반사회화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공공봉사동기, 일반사회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다.

넷째, 공공봉사동기, 일반사회화의 관계는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일반사회화가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p < .01$, $p < .001$ 에서 검증하였다.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표본의 구성 및 특성

표본의 구성 및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표본의 구성 및 특성

| | | 빈도 | 퍼센트 |
|------|--------------|-----|-------|
| 성별 | 남 | 191 | 80.6 |
| | 여 | 46 | 19.4 |
| 전공 | 법학과 | 87 | 36.7 |
| | 행정학과 | 87 | 36.7 |
| | 무응답 | 63 | 26.6 |
| 학년 | 1학년 | 64 | 27.0 |
| | 2학년 | 64 | 27.0 |
| | 3학년 | 56 | 23.6 |
| | 4학년 | 53 | 22.4 |
| 재수경험 | 재수경험있음 | 100 | 42.2 |
| | 재수경험없음 | 137 | 57.8 |
| 가계소득 | 200만원 미만 | 7 | 3.0 |
| | 200~300만원 미만 | 17 | 7.2 |
| | 300~400만원 미만 | 54 | 22.8 |
| | 400~500만원 미만 | 76 | 32.1 |
| | 500~600만원 미만 | 35 | 14.8 |
| | 600~700만원 미만 | 17 | 7.2 |
| | 700만원 이상 | 31 | 13.1 |
| 합계 | | 237 | 100.0 |

표본의 구성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남자가 80.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여자는 19.4%로 나타나 남녀의 비율이 4:1로 나타났으며, 전공별로는 법학과가 36.7%, 행정학과가 36.7%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27%, 2학년이 27%, 3학년이 23.6%, 4학년이 22.4%로 나타났으며 재수경험별로는 재수경험이 있다가 42.2%, 재수경험이 없다는 57.8%로 경험이 없는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가계 소득별로는 400~500만원 미만이 32.1%였으며 300~400만원 미만이 22.8%, 500~600만원 미만이 14.8%로 나타나 300~600만원 미만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700만원 이상도 13.1%나 차지하였다.

2. 측정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가. 타당도 검증

공공 봉사동기의 평가 척도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순목(2000)은 측정변수의 측정결과에 공통분산뿐 아니라 문항 특유의 분산과 측정시의 오차가 포함된 고유분산이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 공통요인분석모형을 택해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요인분석의 모형 중 공통요인분석을 택하였다.

공통분산(communalities)의 초기값은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다중상관제곱치)를 사용하였고, 기초구조의 추출을 위해서 단일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다. 고유치가 1 이상이고, 누적분산비율, 스크리검사, 그리고 해석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동기 평가의 구성 요인수를 3개로 결정하였다.

<표 5> 공공봉사동기의 타당도 검증

| | 요인1 | 요인2 | 요인3 | 공통성 |
|--------------|-------------|-------------|-------------|------|
| 모험23 | .745 | .188 | .001 | .590 |
| 모험24 | .734 | .175 | .012 | .570 |
| 모험18 | .688 | -.193 | -.140 | .530 |
| 모험20 | .674 | -.015 | -.049 | .458 |
| 모험17 | .630 | .174 | .140 | .447 |
| 모험22 | .584 | .314 | .094 | .448 |
| 동정심14 | .031 | .772 | -.121 | .612 |
| 동정심11 | .162 | .748 | -.024 | .586 |
| 동정심15 | .263 | .690 | -.006 | .545 |
| 동정심13 | -.191 | .618 | .293 | .504 |
| 동정심10 | .202 | .490 | .161 | .307 |
| 공익몰입3 | .146 | -.245 | .757 | .654 |
| 공익몰입6 | -.034 | .094 | .754 | .578 |
| 공익몰입8 | -.054 | .227 | .723 | .578 |
| 고유값 | 3.504 | 2.188 | 1.713 | |
| 설명분산 | 25.030 | 15.628 | 12.239 | |
| 누적분산 | 25.030 | 40.659 | 52.898 | |
| Cronbach의 알파 | .627 | .717 | .753 | |

다시 요인의 수를 3개로 정하고 요인구조를 산출하기 위해 기초 요인구조를 베리맥스(VARIMAX)방식으로 직각 회전시켰다. 각 구성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요인 부하량이 크면서 다른 문항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은 제외시켰다. 이를 통해 요인1은 모험과 희생정신의 의미를 갖는 모험요인이라고 명명하고, 요인2는 동정심 요인, 요인3은 공익몰입을 통한 동기의 의미를 갖는 공익몰입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6> 일반사회화 변수의 타당도 검증

| | 1 | 2 | 공통성 |
|--------------|-------------|-------------|------|
| 종교활동10 | .900 | -.013 | .810 |
| 종교활동8 | .880 | .031 | .776 |
| 종교활동11 | .860 | .018 | .739 |
| 종교활동7 | .849 | .184 | .755 |
| 가족사회화5 | .099 | .861 | .751 |
| 가족사회화4 | .003 | .801 | .641 |
| 가족사회화2 | -.120 | .729 | .545 |
| 가족사회화6 | .281 | .696 | .563 |
| 고유값 | 3.314 | 2.266 | |
| 설명분산 | 41.424 | 28.323 | |
| 누적분산 | 41.424 | 69.747 | |
| Cronbach의 알파 | .779 | .898 | |

최종적으로 선정된 요인분석 결과 요인1은 종교 활동의 의미를 갖는 요인이라고 명명하고, 요인2는 가족사회화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나. 신뢰도 검증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신뢰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일반적으로 0.6 이상을 측정지표의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0.6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했다.

<표 7> 영역의 신뢰성검증

| | | Alpha | 전체 |
|--------|--------|-------|------|
| 공공봉사동기 | 모험23 | .720 | .627 |
| | 모험24 | .724 | |
| | 모험18 | .758 | |
| | 모험20 | .752 | |
| | 모험17 | .753 | |
| | 모험22 | .756 | |
| | 동정심14 | .648 | .717 |
| | 동정심11 | .628 | |
| | 동정심15 | .653 | |
| | 동정심13 | .698 | |
| | 동정심10 | .715 | |
| | 공익몰입3 | .652 | .753 |
| | 공익몰입6 | .686 | |
| | 공익몰입8 | .647 | |
| 일반사회화 | 종교활동10 | .860 | .779 |
| | 종교활동8 | .865 | |
| | 종교활동11 | .878 | |
| | 종교활동7 | .872 | |
| | 가족사회화5 | .654 | .898 |
| | 가족사회화4 | .712 | |
| | 가족사회화2 | .769 | |
| | 가족사회화6 | .756 | |

공공봉사동기와 일반사회화 영역의 개별신뢰도와 영역별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희생정신 0.627, 동정심 0.717, 공익몰입 0.753으로 모두 .60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사회화 변수 중 종교 활동 0.779, 가족사회화 0.898로 역시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측정변수의 일반적인 경향

봉사동기와 일반사회화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봉사동기의 일반적인 경향

| 번호 | 잠재변수 | 측정항목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1 | 공익몰입 | 정치인에 대한 관심 | 2.90 | 1.016 | .083 | -.838 |
| 2 | | 공공정책에 대한 관심 | 3.19 | .884 | -.159 | -.276 |
| 3 | | 사회의 일에 대한 관심 | 3.42 | .828 | -.517 | .137 |
| 4 | 동정심 | 사회보장정책 중요성 | 3.41 | .950 | -.621 | .212 |
| 5 | | 곤경에 처한 이들이 안됐음 | 3.63 | .919 | -.583 | .187 |
| 6 | | 저소득층의 고통에 대한 감정적 공감 | 3.79 | .871 | -.712 | .531 |
| 7 | | 인간은 남과 의지해 살아가는 존재 | 3.65 | .873 | -.409 | -.110 |
| 8 | 모험 | 애국심은 타인의 복지를 돌보는 것을 포함 | 3.48 | .866 | -.381 | .047 |
| 9 | | 개인적 성취보다 사회 변화가 더 중요 | 2.97 | .823 | .063 | -.382 |
| 10 | | 나 자신보다 직무가 중요 | 2.83 | .919 | .176 | -.323 |
| 11 | | 나 자신보다 사회적 대의를 위한 일을 함 | 2.94 | .811 | .012 | .190 |
| 12 | | 받은 것보다 많은 것을 사회에 환원 | 3.23 | .903 | -.231 | -.214 |
| 13 | | 타인을 돕기 위해 손해를 감수 | 3.22 | .818 | -.042 | -.157 |
| 14 | | 사회의 선을 위해 희생할 각오 | 3.30 | .883 | -.300 | -.090 |

봉사동기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공익몰입과 동정심은 3 이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에, 모험의 경우에는 17, 18, 20은 3 미만으로 부정적인 답변에 가까운 응답을, 22, 23, 24는 3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에 가까운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대체로 고른 편이고, 왜도와 첨도도 정규분포이내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9> 일반사회화의 일반적인 경향

| 번호 | 잠재변수 | 측정항목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1 | 종교활동 | 종교의식에 참여 | 2.39 | 1.204 | .508 | -.747 |
| 2 | | 기도, 종교서적을 읽음 | 2.37 | 1.237 | .559 | -.704 |
| 3 | | 종교의식 이외의 신앙활동에 참여 | 2.16 | 1.079 | .730 | -.036 |
| 4 | | 관련 활동, 집단에 참여 | 2.23 | 1.124 | .741 | -.107 |
| 5 | 가족 사회화 | 가족이 항상 서로 도움 | 3.69 | .913 | -.396 | -.292 |
| 6 | | 도덕적 가치에 대해 부모와 대화 | 3.56 | .971 | -.358 | -.427 |
| 7 | | 부모가 성인이 되면 남을 도와야 한다고 함 | 3.60 | .971 | -.420 | -.243 |
| 8 | | 부모가 자원봉사 참여를 권함 | 3.21 | 1.011 | -.260 | -.496 |
| 9 | 자원봉사 활동 | 단체에서 자원봉사 한 시간 | 3.15 | 1.293 | .248 | -.847 |
| 10 | | 타인을 위해 봉사한 시간 | 2.96 | 1.162 | .875 | .263 |

*자원봉사활동은 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많음을 의미함.

일반사회화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종교 활동은 3 미만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에, 가족사회화의 경우에는 3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에 가까운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공식적 자원봉사는 3 이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비공식적 자원봉사는 3 미만으로 부정적인 답변에 가까운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대체로 고른 편이고, 왜도와 첨도도 정규분포이내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 2 절 PSM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가설 검증

1. 일반사회화 변수에 대한 가설검증

일반사회화 변수와 봉사동기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일반사회화 변수와 봉사동기의 관계

| | 가족 사회화 | 종교 활동 | 자원봉사 활동 | 공익 몰입 | 동정심 | 희생 정신 | 봉사동 기전체 |
|------------|-----------|----------|------------|----------|----------|----------|------------|
| 가족 사회화 | 1 | | | | | | |
| 종교활동 | .152(*) | 1 | | | | | |
| 봉사활동 | .185(**) | .058 | 1 | | | | |
| 공익몰입 | .049 | .028 | -.003 | 1 | | | |
| 동정심 | .441(**) | -.151(*) | .184(**) | .100 | 1 | | |
| 희생정신 | .440(**) | .112 | .180(**) | .040 | .274(**) | 1 | |
| 봉사동기 전체 | .516(**) | -.001 | .204(**) | .431(**) | .727(**) | .766(**) | 1 |

*p<.05, **p<.01

일반사회화 변수와 봉사동기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일반사회화화 봉사 동기 중 공익몰입과는 아무런 관련성

을 보이지 않았으며, 가족사회화와 동정심($r=.441$, $p<.01$), 희생정신($r=.440$, $p<.01$), 봉사동기전체($r=.516$, $p<.01$)이었으며 자원봉사활동과 동정심($r=.184$, $p<.01$), 희생정신($r=.180$, $p<.01$), 봉사동기전체($r=.204$, $p<.01$)로 나타나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가족사회화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봉사동기전체와 동정심과 희생정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Perry(1996)의 공익몰입에 관한 설문이 정치에 대한 인상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공익에 대한 호감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개인의 호감과 성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만연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젊은 경찰대학생들에게 정치에 대한 인상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도를 통하여 공직에 대한 몰입도를 측정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미국을 기준으로 만든 Perry(1996)의 설문의 일부가 우리 한국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조직사회화 변수에 대한 가설검증

조직사회화와 공공봉사동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재학기간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

| |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유의확률 | scheffe |
|----------------|------|-----|------|------|-----------|------|---------|
| 공익 몰입 | 1학년a | 64 | 2.94 | .773 | 10.381*** | .000 | d>b.c>a |
| | 2학년b | 64 | 3.16 | .585 | | | |
| | 3학년c | 56 | 3.05 | .627 | | | |
| | 4학년d | 53 | 3.58 | .595 | | | |
| | 합계 | 237 | 3.17 | .691 | | | |
| 동정 심 | 1학년a | 64 | 3.40 | .699 | 5.147** | .002 | d>b.c>a |
| | 2학년b | 64 | 3.64 | .410 | | | |
| | 3학년c | 56 | 3.53 | .538 | | | |
| | 4학년d | 53 | 3.82 | .709 | | | |
| | 합계 | 237 | 3.59 | .614 | | | |
| 희생 정신 | 1학년a | 64 | 2.79 | .644 | 15.638*** | .000 | d>b.c>a |
| | 2학년b | 64 | 3.09 | .433 | | | |
| | 3학년c | 56 | 3.03 | .475 | | | |
| | 4학년d | 53 | 3.48 | .596 | | | |
| | 합계 | 237 | 3.08 | .592 | | | |
| 봉사 동기 전체 | 1학년a | 64 | 3.04 | .475 | 25.582*** | .000 | d>b.c>a |
| | 2학년b | 64 | 3.30 | .218 | | | |
| | 3학년c | 56 | 3.21 | .201 | | | |
| | 4학년d | 53 | 3.62 | .471 | | | |
| | 합계 | 237 | 3.28 | .418 | | | |

p<.01, *p<.001

재학기간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공공몰입에 대해서 1학년은 2.94점, 2학년은 3.16점, 3학년은 3.05점, 4학년은 3.58점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쉘레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학년은 1학년과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2, 3학년은 서로 비

숫하게 나타났다. 동정심에 대해서 1학년은 3.40점, 2학년은 3.64점, 3학년은 3.53점, 4학년은 3.82점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쉼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학년은 1학년과 차이를 보이며 2, 3학년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희생정신에 대해서 1학년은 2.79점, 2학년은 3.09점, 3학년은 3.03점, 4학년은 3.48점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쉼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학년은 1학년과 차이를 보이며 2, 3학년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봉사동기전체에 대해서 1학년은 3.04점, 2학년은 3.30점, 3학년은 3.21점, 4학년은 3.62점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쉼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학년은 1학년과 차이를 보이며 2, 3학년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찰대학의 교육목표와 실천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찰대학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국가관과 희생정신,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훈육교육, 정신교육 등을 부단히 실시하고 있다. 4년 동안의 생활을 통해 은연중에 이러한 봉사정신 함양 교육이 학생들에게 침투되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2학년과 3학년이 거의 비슷하며 4학년만 높게 나왔다는 점은 4학년의 특수성에 기한다고 보여 진다.

경찰대학 4학년은 졸업과 동시에 경찰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며, 여학생의 경우 일선 경찰관서에 배치되고 남학생의 경우 일선 전.의경 부대에서 2년간 소대장 또는 참모로서 군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이때부

터 이미 공직자로서의 삶이 시작된다고 볼 때, 주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 또는 일선에 나가게 된다는 기대감 등이 일시적으로 공공봉사동기를 높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대학의 정신교육이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경찰대학에서의 재학기간 동안 공공봉사동기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봉사동기가 입직 전 일반사회화를 통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입직 후 조직 내 사회화를 통해 변화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3. 개인적 특성 변수에 대한 가설검증

성별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성별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

| | 성별 | N | 평균 | 표준편차 | t | 유의확률 (양쪽) |
|------------|----|-----|------|------|-----------|--------------|
| 공익몰입 | 남 | 191 | 3.21 | .671 | 2.033* | .043 |
| | 여 | 46 | 2.99 | .747 | | |
| 동정심 | 남 | 191 | 3.48 | .609 | -5.834*** | .000 |
| | 여 | 46 | 4.03 | .403 | | |
| 희생정신 | 남 | 191 | 3.11 | .608 | 1.508 | .133 |
| | 여 | 46 | 2.96 | .510 | | |
| 봉사동기 전체 | 남 | 191 | 3.27 | .433 | -1.241 | .216 |
| | 여 | 46 | 3.35 | .340 | | |

성별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봉사동기전체에 대해서는 남자가 3.27점, 여자가 3.35점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봉사동기의 하위영역을 살펴본 결과 공익몰입에 대해서는 남자가 3.21점, 여자가 2.99점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동정심에 대해서는 남자가 3.48점, 여자가 4.03점으로 나타나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희생정신에 대해서는 남자가 3.11점, 여자가 2.96점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익몰입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관심이 많고 참여도가 높을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며 동정심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감성이 풍부하고 동정심이 많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공봉사동기에 대하여 남학생은 공직에의 참여에 대하여 여학생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서 남.여간 다른 보상기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가계소득과 공공봉사동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가계소득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

| | | N | 평균 | 표준 편차 | F | 유의 확률 |
|------------|-----------|-----|------|----------|-------|----------|
| 공익몰입 | 200미만 | 7 | 3.29 | .559 | 1.620 | .142 |
| | 200~300미만 | 17 | 3.00 | .612 | | |
| | 300~400미만 | 54 | 3.12 | .713 | | |
| | 400~500미만 | 76 | 3.12 | .684 | | |
| | 500~600미만 | 35 | 3.29 | .595 | | |
| | 600~700미만 | 17 | 3.59 | .559 | | |
| | 700이상 | 31 | 3.09 | .839 | | |
| | 합계 | 237 | 3.17 | .691 | | |
| 동정심 | 200미만 | 7 | 4.03 | .725 | 1.629 | .140 |
| | 200~300미만 | 17 | 3.58 | .667 | | |
| | 300~400미만 | 54 | 3.52 | .599 | | |
| | 400~500미만 | 76 | 3.54 | .573 | | |
| | 500~600미만 | 35 | 3.50 | .693 | | |
| | 600~700미만 | 17 | 3.71 | .617 | | |
| | 700이상 | 31 | 3.79 | .548 | | |
| | 합계 | 237 | 3.59 | .614 | | |
| 희생정신 | 200미만 | 7 | 2.95 | .416 | .319 | .927 |
| | 200~300미만 | 17 | 3.12 | .496 | | |
| | 300~400미만 | 54 | 3.09 | .636 | | |
| | 400~500미만 | 76 | 3.03 | .599 | | |
| | 500~600미만 | 35 | 3.10 | .620 | | |
| | 600~700미만 | 17 | 3.09 | .604 | | |
| | 700이상 | 31 | 3.18 | .571 | | |
| | 합계 | 237 | 3.08 | .592 | | |
| 봉사동기 전체 | 200미만 | 7 | 3.41 | .334 | .930 | .474 |
| | 200~300미만 | 17 | 3.26 | .351 | | |
| | 300~400미만 | 54 | 3.25 | .417 | | |
| | 400~500미만 | 76 | 3.23 | .405 | | |
| | 500~600미만 | 35 | 3.28 | .466 | | |
| | 600~700미만 | 17 | 3.42 | .479 | | |
| | 700이상 | 31 | 3.38 | .405 | | |
| | 합계 | 237 | 3.28 | .418 | | |

가계소득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가계소득에 상관없이 공익몰입, 동정심, 희생정신, 봉사동기전체 대해서 비슷하게 반응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가계소득은 봉사동기에 별다른 관련성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랄수록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에 맞지 않고, 반대로 부유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란 사람일수록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는데 익숙하다는 반대의 가설 또한 맞지 않았다. 즉 공공봉사동기 수준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으며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가정의 사회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된다.

재수경험과 공공봉사동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재수경험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

| | 재수경험 | N | 평균 | 표준편차 | t | 유의확률 (양쪽) |
|--------|------|-----|------|------|------|--------------|
| 공익몰입 | 경험있음 | 100 | 3.18 | .684 | .187 | .852 |
| | 경험없음 | 137 | 3.16 | .698 | | |
| 동정심 | 경험있음 | 100 | 3.60 | .653 | .198 | .843 |
| | 경험없음 | 137 | 3.58 | .587 | | |
| 희생정신 | 경험있음 | 100 | 3.11 | .593 | .520 | .604 |
| | 경험없음 | 137 | 3.06 | .592 | | |
| 봉사동기전체 | 경험있음 | 100 | 3.30 | .443 | .486 | .627 |
| | 경험없음 | 137 | 3.27 | .399 | | |

재수경험에 따른 공공봉사동기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재수경험에 상관없이 공익몰입, 동정심, 희생정신, 봉사동기전체 대해서 비슷하게 반응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재수경험은 봉사동기에 별다른 관련성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재수 경험 즉, 공직에 들어가고자 고된 수련의 기간을 경험하며 어렵게 경찰대학에 진학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은 맞지 않았으며 이는 재수라는 1년의 기간이 공공봉사동기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개인적 특성, 일반사회화, 조직사회화 변수를 투입시킨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봉사동기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
| | | B | 표준 오차 | 베타 | | |
| | (상수) | 1.856 | .142 | | 13.091 | .000 |
| 개인적특성 | 성별 | .016 | .055 | .015 | .286 | .775 |
| | 가계소득 | .012 | .014 | .042 | .831 | .407 |
| | 재수경험 | .068 | .043 | .080 | 1.569 | .118 |
| | 가족사회화 | .251 | .029 | .450 | 8.554*** | .000 |
| 일반사회화 | 종교활동 | -.020 | .021 | -.048 | -.929 | .354 |
| | 봉사활동 | .048 | .021 | .116 | 2.243 | .026 |
| 조직사회화 | 학년 | .145 | .019 | .385 | 7.512*** | .000 |
| R 제곱=.434 F=24.669*** | | | | | | |

성별(남자=0, 여자=1)

봉사동기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사회화($p=.000$)와 학년($p=.000$)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가족사회화($B=.450$)와 학년($B=.385$)이 봉사동기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사회화와 학년이 높아질수록 봉사동기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R^2)은 43.4%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Perry(2000)의 가족사회화에 대한 연구 이후에 가족사회화가 봉사동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를 지지하며, 재학기간이 길어질수록 봉사동기 수준이 높아졌다는 결과는 우선 공공봉사동기가 가족사회화 같은 입직 전 사회화 요인 뿐 아니라 입직 후 조직 내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다는 최근의 연구들을 지지한다.

<표 16> 공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비표준화 계수 B |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베타 | t | 유의확률 |
|----------------------|--------|--------------|------|-------------|----------|------|
| | (상수) | 2.765 | .293 | | 9.445 | .000 |
| 개인적 특성 | 성별 | -.232 | .114 | -.134 | -2.039* | .043 |
| | 가계소득 | .029 | .029 | .066 | 1.024 | .307 |
| | 재수경험 | .013 | .089 | .009 | .147 | .883 |
| 일반 사회화 | 가족사회화 | .027 | .061 | .029 | .440 | .660 |
| | 종교활동 | .019 | .044 | .028 | .426 | .670 |
| | 자원봉사활동 | -.005 | .044 | -.007 | -.108 | .914 |
| 조직 사회화 | 학년 | .179 | .040 | .288 | 4.484*** | .000 |
| R 제곱=.110 F=3.978*** | | | | | | |

공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p=.043$)과 학년($p=.000$)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성별($B=-.134$)과 학년($B=.288$)이 공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보다 남자인 경우, 학년이 높아

질수록 공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R²)은 11.0%를 설명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4학년 남학생이 1학년 여학생보다 정치에 관심이 높고 공익몰입 수준이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표 17> 동정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확률 |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상수) | 1.759 | .222 | | 7.912 | .000 |
| 개인적 특성 | 성별 | .440 | .086 | .286 | 5.107*** | .000 |
| | 가계소득 | -.001 | .022 | -.002 | -.028 | .978 |
| | 재수경험 | .082 | .068 | .066 | 1.212 | .227 |
| 일반 사회화 | 가족사회화 | .318 | .046 | .391 | 6.927*** | .000 |
| | 종교활동 | -.101 | .033 | -.169 | -3.042** | .003 |
| | 자원봉사활동 | .054 | .033 | .090 | 1.630 | .105 |
| 조직사회화 | 학년 | .093 | .030 | .169 | 3.082** | .002 |
| R 제곱=.350, F=17.271*** | | | | | | |

성별(남자=0, 여자=1)

동정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p=.000), 가족사회화(p=.000), 종교 활동(p=.003), 학년(p=.002)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성별(B=.273), 가족사회화(B=.416), 종교 활동(B=-.187), 학년(B=.169)이 동정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보다 여자인 경우, 가족사회화가 높아질수록, 종교 활동이 낮을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동정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R²)은 35.0%를 설명하고 있다. 활발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동정심이 많다는 일반적 통념과 다른 결과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종교에 대한 몰입이 동정심의 발로라기보다 자아실

현, 사후세계에 대한 불안, 궁극 가치 추구 등의 다양한 이유에 기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18> 희생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확률 |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상수) | 1.482 | .218 | | 6.786 | .000 |
| 개인적 특성 | 성별 | -.214 | .085 | -.143 | -2.531* | .012 |
| | 가계소득 | .013 | .021 | .033 | .596 | .552 |
| | 재수경험 | .083 | .067 | .069 | 1.249 | .213 |
| 일반 사회화 | 가족사회화 | .307 | .045 | .387 | 6.785*** | .000 |
| | 종교활동 | .029 | .033 | .050 | .886 | .376 |
| | 자원봉사활동 | .068 | .033 | .117 | 2.087* | .038 |
| 조직 사회화 | 학년 | .171 | .030 | .320 | 5.759*** | .000 |
| R 제곱=.334 F=16.148*** | | | | | | |

성별(남자=0, 여자=1)

희생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p=.012), 가족사회화(p=.000), 자원봉사활동(p=.038), 학년(p=.000)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성별(B=-.169), 가족사회화(B=.441), 자원봉사활동(B=.117), 학년(B=.320)이 희생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보다 남자인 경우, 가족사회화, 자원봉사활동, 학년이 높아질수록 희생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R²)은 33.4%를 설명하고 있다.

제 6 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경찰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 수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Perry(2000)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반 사회화 요인 변수를 설정하였고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소홀 했던 조직사회화 요인(재학기간-학년)에 주목하였으며, 개인 특성 변수와 더불어 공공봉사동기 수준에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집단 간 분석과 회귀방정식을 사용한 실증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경찰대학생의 가족 사회화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특히 공공봉사동기 측정변수 중 동정심과 희생정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봉사동기 전체로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종교 활동 수준과 공공봉사 동기 수준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Perry(2008)의 연구에서 종교 행위가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관계에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가족사회화 요인과 마찬가지로 공익몰입과는 관련성이 없었으나 동정심과 희생정신, 공공봉사동기 전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조직사회화 변수인 경찰대학생의 재학기간이 길수록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았다. 4학년은 1학년에 비해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2학년과 3학년은 거의 비슷했으나 전 학년을 비교해 볼 때 학년이 높아 질수록 전반적으로 공공봉사동기 수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차이로, 공익몰입과 희생정신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동정심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과 재수경험은 공공봉사동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그 동안 공공봉사동기 결정요인 분석 연구들이 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경찰간부 임용을 전제로 경찰대학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찰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erry(1996, 2000, 2008)를 비롯한 기존의 연구들은 현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었는지 아니면 공무원 생활이 공공봉사동기 수준을 높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단일한 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무원 집단안의 출신, 직군, 직급 등 다양한 외생변수를 적절히 통제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같은 연령, 같은 직급, 같은 학력 수준의 경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외생변수에

대한 통제가 다소 용이하였으며, 아직 공직에 입직하지 않은 경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입학 전 가족사회화 요인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가족사회화와 자원봉사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Perry(1996)의 PSM 측정 척도와, Perry et al(2008)의 연구에서 제시한 질문지에 의거, 경찰대학생을 상대로 재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족사회화와 봉사활동이 공공봉사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미국의 일반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의 경찰대학생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종교 활동 수준과 공공봉사 동기 수준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Perry(2008)의 연구에서 종교 행위가 공공봉사동기에 정(+)의 관계에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교는 봉사, 자선과 이타심을 주요 가치로 추구하여, 이는 공공봉사동기 수준에 밀접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가능하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대부분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공동체 활동을 벌이는 미국 사회와 한국사회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경찰대학생의 종교 활동이란 단체생활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종교 활동, 공동체 활동, 봉사활동, 공공봉사동기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간의 연구들이 공무원의 입직 전에 형성되는 일반사회화 요인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입직 후에 영향을 주는 재직기간, 계급 같은 조직사회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볼 때 경찰대학생의 재학기간

을 조직사회화 변수로 선정하여 경찰대학이라는 조직 내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공공봉사동기는 입직 전 사회화를 통해 형성되지만 입직 후 조직 내의 조직사회화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일련의 연구를 지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재직기간은 공공봉사동기 수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Moynihan & Pandey, 2007)에 반해 본 연구에서 경찰대학생의 재학기간은 공공봉사동기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해군간부의 재직기간이 공공봉사동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박지환(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 되는 것이며, 일반 공무원에 비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강조하는 경찰대학 교육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개인특성에 관한 요인 검증과 관련하여 공익몰입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동정심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높은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공직에 대해 남자와 여자가 기대하는 것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자의 경우 정책결정에의 참여 기회 확대 등 정치 효능감 증대를 통한 공익몰입 차원의 욕구를 실현 시키는 보상기제를 발휘해야하며, 여자의 경우 본인의 업무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자존감을 높여주는 보상기제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수학기간에 따른 피교육생들의 공공봉사동기 수준의 변화 측정을 통해 특수 목적 교육기관의 역할수행에 대한 새로운 평가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찰대학, 사관학교 등 구성원

의 공직임용 전제하에 자질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의 교육목표 실현 여부의 측정도구로서 PSM을 활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향후에는 교육 실시 전과 후의 PSM 수준 비교, 또는 다양한 외생변수의 통제를 통한 교육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PSM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 양성 특수 목적 교육기관들의 효과성을 가늠해 보는 연구 또한 가능할 것이다.

제 3절 연구의 한계

첫째, 연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찰 대학생 237명이다. 경찰 대학생 총원이 480명임을 감안할 때 반 수 정도에 이르나, 각 학년 당 60명 내외로 샘플 수가 적고, 여학생은 48명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역시 총 표본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측정지표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SM 측정지표는 미국사회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Perry가 고안하고 사용한 것을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아직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경찰 대학생의 공공봉사동기까지 제대로 측정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다.

셋째, 한 가지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만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위협하는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에 응답하게 되는 사회적 소망성에 의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설현수 등 2005).

즉 경찰대학 고학년은 높은 수준의 공공봉사정신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사회적 소망성에 의해 본인의 생각과 무관한 응답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편의(bias)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하거나 설문조사를 다양화 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일반 사회화 요인 외에 조직사회화 요인으로 재직기간만을 다루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교수와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와 같은 조직 사회화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남구. (2011). 국회보좌관의 공공직무동기와 입법보좌업무의 성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강준구. (2010) 민간대학 군사학과(부) 출신장교의 PSM 및 진로/역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경찰대학. (2009). 경찰대학 요람. 경기 : 저자

경찰대학 20년사 편찬위원회. (2001). 경찰대학 20년사(1979-2001). 경기 : 저자

고길곤.박치성 (2010). 대학생의 직업선택동기와 공직동기. 행정논총 48(2). pp.339-368

고원학. (2011). NGO 종사자들의 직무태도 영향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김상묵. (2003a). 공공서비스동기와 내적보상의 중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논집」, 15(4): 771-790.

_____. (2003b). 일하는 방식의 개선: 동기부여적 측면에서의 업무생산성 향상방안 모색.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정부정책의 신뢰와 책임성

_____. (2005). 공직 선택 동기와 공무원의 행태. 「한국행정연구」, 14(2): 297-325.

김서용, 조성수, 박병주. (2010) “공직동기(PSM)의 선행요인 : 사회와 요인의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제 44권 144~147

김태호, 김유한. “공공봉사동기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 2010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태호, 노종호. “공공봉사동기가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 48권 3호

남궁근. (2006). 행정조사 방법론. 법문사.

남명우. (2011). 공공봉사동기(PSM)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박지환. (2009). PSM 결정요인 및 직무태도에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서원석 외 3명. (2007). “경찰대학 운영 혁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손명구. (2007) 한국에서의 공공봉사동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산업대 IT 정책대학원, 서울

송지준. (2008).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 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오영민. (2009). PSM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울

이근주. (2005a) PSM과 공무원의 업무성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81-104.

_____. (2005b) 공사부문 종사자간의 동기요인의 차이 분석 : PSM을 이용하여. 한국행정연구

이근주,이혜윤. (2007). 보상유형에 대한 차별적 기대가 공무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1(2): PP.117-140

이영남. “경찰대학의 새로운 역할모색.” 한국행정학회보 10(2005)

이재란. (2005). 중요타인의 친사회적 행동과 학생의 친사회적 행동과

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윤. (2005). 공무원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보상에 대한 기대와 PSM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도빈. (2003). 한국 공무원의 윤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우철. (2011). PSM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조태준.윤수재. (2009). 공공서비스동기와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 행정연구. 18(1). pp.223-252

천오벳. (2009). 준정부조직의 조직특성요인과 통솔의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최무현.조창현. (2010). 한국 준정부조직의 학습조직화가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정부학연구, 16(1). pp. 417-442

한에스더. (2010). PSM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공직 경험과 업무 특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논문

<외국문헌>

Alonso, P. & Lewis, G. B. (2000).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Job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Federal Sector, *American Review of Puvlic Administration*. 31(4), pp. 363-380

Bright, L. (2005). Public Employees With High Level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Who are They, Where are They, and What do They Want?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5(2): 138-154.

_____. Does Public Service Motivation Really Make a Difference on th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Public Employees. *The Americ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8(2), pp. 149-166

Camilleri, E. (2006). Towards Developing an Organizational Commitment-Public Service Motivation Model for the Maltese Public Service Employee.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21(1): 63-83.

_____. (2007). Antecedents Affection Public Service Motivation. *Personnel Review*, 36(3), pp. 356-377

Houston, David J. (2000). Public-Service Motivation: A Multivariate Tes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rch and Theory*. 10(4). pp. 718-727

_____. (2005). Walking the Walk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ublic Employees and Charitable Gifts of Time, Blood and Mone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rch and Theory*. 16. pp. 67-86

Kim, Sangmook. (2006).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27(8): 722-740.

_____. (2009a). Testing the Structure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Korea: A Research Note. *JPART*, 19: 839-851.

_____. (2009b). Revising Perry's Measurement Scale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9(2): 149-163.

Moynihan, D. P. & Pandey, S. K. (2007). The Role of Organizations in Foster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1): 40-53.

Pandey, S. K., Wright, B. E., & Moynihan, D. P. (2008).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Citizenship Behavior in Public Organizations: Testing a Preliminary Model.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11(1): 89-108.

Perry, J. L. & Hondeghem, A. (2008a). Building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About Public Service Motivation.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11(1): 3-12.

_____. (2008b). Editors' Introduction. In J. L. Perry and A. Hondeghem, (eds.), *Motivation in Public Manage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erry, J. L. and Lois R. Wise. (1990).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 (3): 367-373.

Perry, J. L. (1996). Measur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An Assessment of Construct Reliability and Validity. *JPART*, 6(1): 5-22.

_____. (1997). Anteceden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JPART, 7(2): 181-197.

_____. (2000). Bringing Society In: Toward a Theory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JPART, 10(2): 471-488.

Perry, J. L. Brudney, J. L., Coursey, D., Littlepage, L. (2008). What Drives Morally Committed Citizens? A Study of the Anteceden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8: 445-458.

Perry, J. L. & Rainey, H. G. (1988).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in Organization Theory: A Critique and Research Strateg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2): 182-201.

<부록> 설문지

본 설문지는 경찰대학생의 공공봉사동기(PSM)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설문조사에 대한 여러분의 피로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경찰대학의 올바른 교육방향 설정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피곤하시더라도 애정 어린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사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학술적인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조사 연구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석사과정
연구자 정 민 제

※ 다음 설문을 읽고 일치하는 곳에 V 또는 O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설문입니다.>

1. 성별 : ① 남 () ② 여 ()

2. 전공 : ① 법학과 () ② 행정학과 ()

3. 재학기간(학년)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④ 4학년 ()

4. 재수경험

: ① 재수 경험이 있다. () ② 재수 경험이 없다. ()

5. 가족의 현재 가계 월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200만원 미만 ()

②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③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④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⑤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

⑥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⑦ 700만원 이상 ()

I. 공공봉사동기(PSM)와 관련된 설문입니다.

| 번호 | 문항 | 전혀 아니 다 | 그렇 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 다 | 매우 그렇 다 |
|----|--------------------------------------------|---------------|---------------|----------|---------|---------------|
| 1 |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다 | | | | | |
| 2 | 공익에 기여하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 | | | | |
| 3 | 정치인들에게 별 관심이 없다 | | | | | |
| 4 | 공직에서 일하는 것은 나의 시민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 | | | | |
| 5 | 평소에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편이다 | | | | | |
| 6 | 공공정책의 시행 및 폐지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 | | | | |
| 7 | 나는 내 이익에 배치되더라도 정부가 국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 | | | | |
| 8 |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다 | | | | | |
| 9 | 대부분의 경우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다 | | | | | |
| 10 | 대부분의 사회보장정책은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하다 | | | | | |
| 11 | 곤경에 처한 이들을 보면 안 됐다는 생각을 감추기 어렵다 | | | | | |
| 12 |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동정할 필요가 없다. | | | | | |

| | | | | | | |
|----|-------------------------------------------------|--|--|--|--|--|
| 13 | 저소득층의 고통에 대해 감정적 공감 이 거의 가지 않는다. | | | | | |
| 14 | 일상에서 인간은 남과 의지해 살 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을 종종 한 다. | | | | | |
| 15 | 애국심은 타인의 복지를 돌보는 것을 포함한다. | | | | | |
| 16 | 내가 열렬히 지지하는 사회정책은 거의 없다. | | | | | |
| 17 | 개인적인 성취보다도 사회를 변화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 | | | | |
| 18 | 나 자신보다 직무가 중요하다. | | | | | |
| 19 |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 는 것이 더 중요하다. | | | | | |
| 20 | 나는 대체로 나 자신보다는 사회적 대의를 위한 일을 더 많이 한다. | | | | | |
| 21 | 금전적 보상과 전혀 상관없이 타 인을 위한 봉사는 기분이 좋다. | | | | | |
| 22 | 내가 사회로부터 받은 것보다 많 은 것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23 | 나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편이다. | | | | | |
| 24 | 사회의 선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희생 할 각오가 되어 있다. | | | | | |

II. 일반 사회화와 관련된 설문입니다.

| 번호 | 문항 | 전혀 아니 다 | 그렇 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 다 | 매우 그렇 다 |
|----|-----------------------------------------|---------------|---------------|----------|---------|---------------|
| 1 | 부모님은 자원봉사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 | | | |
| 2 | 우리 가족은 항상 서로 도왔다. | | | | | |
| 3 | 부모님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어려워하셨다 | | | | | |
| 4 | 부모님은 종종 도덕적 가치들에 대해 나와 이야기 하셨다 | | | | | |
| 5 | 부모님은 내가 성인이 되면 기꺼이 나를 도와야한다고 말했다 | | | | | |
| 6 |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자원봉사에 참여할 것을 권했다. | | | | | |
| 7 | 나는 종교의식(예배·미사·법회 등)에 참여한다. | | | | | |
| 8 | 나는 기도 또는 종교서적을 읽는다. | | | | | |
| 9 | 가정에서 전통적인 종교의식을 한다. (가족 기도, 제사 등) | | | | | |
| 10 |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에서 종교 의식 이외의 신앙 활동에 참여한다. | | | | | |
| 11 | 종교나 신앙봉사조직과 관련된 활동이나 집단에 참여한다. | | | | | |

12. 지난 해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 단체 또는 기타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 한 시간은 총 얼마입니까?

- ① 0 시간 ② 1-19 시간 ③ 20-39 시간
④ 40-79 시간 ⑤ 80-159 시간 ⑥ 160 시간 이상

13. 지난 해 동안 타인, 친구, 이웃 또는 친지들을 위해 <보기>와 같은
활동을 한 시간은 총 얼마입니까?

<보기>

- 장봐주기, 심부름, 가사 분담, 주택, 자동차 등의 수리
- 무료 과외, 무료 보육, 기타 생활에서의 도움 등

- ① 0 시간 ② 1-19 시간 ③ 20-39 시간
④ 40-79 시간 ⑤ 80-159 시간 ⑥ 160 시간 이상

Abstract

Studies on Factors Affecting PSM

Joung Min Jea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PSM is a peculiar motivation that appears in public organizations, and, so far, studies on confirming the desired motivation differenc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have predominated the field. If these research have put emphasis on the formation of PSM through general socialization factors such as family socialization or voluntary service based upon government employees. This study not only focuses on general socialization of students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 special group of students that is being educated to be appointed on public positions, but also attempts to analyze how the factors of organization socialization affect PSM.

First, this research investigates which elements affect PSM in

reference to Perry's socialization factors. The study tries to verify whether Perry's theory, a model based upon government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could apply to those in South Korea, especially to students of the KNPU. Second, it attempts to verify a recent study that proposes that PSM is not only determined by general socialization, but also by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This is done by an analysis on an often neglected factor of attendance period and year. In addition, through similar 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attendance period and PSM level, the study tries to verify whether education in Police University is capable of cultivating the spirit of dedication and commitment to the public.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including multi regression analysis among groups, the followings can be found. First, as family socialization level was higher, PSM level also became high. Among measuring variables of PSM, this phenomenon was especially prominent in the areas of sympathy and self-sacrifice, and PSM as a whol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Seco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religious activity level and PSM. Third, as voluntary work experiences increased, PSM also increased. Fourth, longer the students' attendance period was, the higher the PSM level. The difference between seniors and freshmen was significant, and although the sophomores and juniors showed similar levels, in overall statistically meaningful positive correlation existed. Fifth, factors such as sex, household income, and gap year experience

sometimes showed difference but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This research supports the existing studies that argue variables such as family socialization and volunteer activity positively affects the quality of PSM. However, it also agrees with study results that state although PSM develops before entering Police University, it also could develop after. Conversely, this result of seniors having higher PSM than freshmen could indicate that the 4 years of education is effective in developing the spirit of dedication and commitment which are appropriate for police executives.

.....

**keywords :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Family socializatio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Student Number* : 2010-22230**